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역동적 지역경제의 실현방향 및 과제

김봉한 | 공주대학교 교수

I. 서론

충남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을 전자 및 자동차 산업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하여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해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충남의 지역경제는 급격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 중국경제의 급부상,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남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충남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추진전략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충남 지역경제의 과제

그동안 충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고, 전자 및 자동차 등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의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충남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

지역산업구조가 2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충남의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농업어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충남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남 지역에서의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농림어업과 서비스산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치의 창출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

충남은 최근 수년간 GRDP의 전국비중인 7.8%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창출 비중(2004~2005년 5.0%)을 보여주는 등 일자리 창출능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3. 전략산업 추진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및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해소

산업화가 천안·아산 등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5. 인구의 적정 성장을 유지

충남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Ⅲ. 충남지역발전의 목표 및 추진과제

1. 경제성장의 동력 확충

1)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별 혁신체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inki업의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성장주도 산업의 고도화

충남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고도화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유지시키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한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지역의 가용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공급 확충

충남 소재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력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기업들의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등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산업의 클러스터 활성화

충남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거점 클러스터가 여타주변지역으로 발생하는 선후방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 중소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 투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과 생산성 효과가 큰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충남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업활동의 기반시설로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충남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신규기업의 유치를 도모한 필요가 있다.

2. 지역내 균형발전 추진

1)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산업과의 연관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높아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의 출원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시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R&D 개발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2) 농림어업부문의 종합대책 실시

한·미 FTA 등으로 장기적으로 농업 개방이 불가피하여 충남의 농업 쇠퇴가 가속될 전망이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큰 자동차 및 전자 관련 소재·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에 필요하다.

- 인구의 크기와 구조는 유효수요를 결정하고, 우수한 노동의 공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 능력 제고

충남의 향후 제조업 경쟁력을 선도할 연구개발능력이 미약하고 R&D 투자가 부진하며 특히 등 지적